

# 철강업계, 상반기 실적 부진 '수요부진·과잉공급' 이중고

지난해부터 원가 부담 누적  
저가 중국산 제품 경쟁 지속  
하반기 실적 전망도 어두워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시장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장기화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과잉 공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실적 반등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 업체를 이끌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포스코홀딩스의 2분기 매출액을 18조원, 영업이익을 696억원으로 전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10.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7.3%나 감소한 실적이다. 앞서 1분기에는 매출 18조520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9%, 17.3%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대제철의 2분기 매출액은 5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525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3%, 88.7%씩 낮아진 수치다. 앞서 1분기에는 매출 5조9478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6.9%, 82.3%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철강업계는 올 상반기 전방산업의 수요 부진 속 늘어나는 수입 철강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가 부담이 누적돼 온 상황에 저가 제품들과 경쟁으로 제품가격이 약세를 이어가면서 수익성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시장 전반에 걸쳐 수요가 부진해 시장 정세로 이어졌다. 고금리 및 실물경기 악화로 국내 건설경기의 위축이 지속됐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근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반면 수요 부진에 재고는 40% 늘었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 부진이 하반기로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철강 부문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철강

경기 전체가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저가 중국제품 수입이 지속되며 상반기보다 협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반기 미국의 대중국 철강 고관세 부과 시행과 미국 대선 등이 예정돼 있어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유입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 대(對) 러시아 제재 강화 등으로 철광석,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철강업계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원재료와 고정비 상승 등의 부담으로 상반기 부진이 깊어졌다"며 "상반기 가격 인상 노력에도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중국 정부의 탄소저감 친환경 정책에 따라 철강 생산 규제가 강화된 만큼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들이 제품 출고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애경케미칼,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 수출

조비-포스코인터 3社 협력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전개를 위해 힘을 모은다.

애경케미칼은 조비와 공동개발한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팜농장(PT BIA)에 수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애경케미칼과 조비, 포스코인터내셔널 3사는 울산에 위치한 조비 공장에서 제품 출고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출을 알리기도 했다.

3사 간 협력은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친환경 제품 연구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애경케미칼과 조비는 양사의 우수한 기술력이 응집된 생분해성 완효성비료를 해외 시장에 확대 공급해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에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완효성 비료를 둘러싸고 있는 생분해수지는 미국 농무부(USDA)의 바이오 소재 기반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햇빛과 미생물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완전 분해돼 환경오염 걱정이 없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이번 생분해성 완효성 비료 수출은 우리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제품을 해외시장에 선보이고 영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사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전 세계 탄소저감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 LG화학, 오만 해수 담수화 절반 책임진다

오만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 참여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3만개 공급

LG화학이 오만 최대 담수화 플랜트에 역삼투막(RO멤브레인)을 공급한다. 플랜트가 본격 가동하면 오만 전체에서 담수화하는 물의 절반이 LG화학의 역삼투막을 통해 생산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오만 구브라(Ghubrah)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사인 GS이니마에 역삼투막 2만 3000개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역삼투막 2만 3000개는 연간 1억톤(하루 30만톤)의 해수를 담수화해 오만 수도권 인구 250만명이 사용하는 물을 생산할 수 있다.

구브라 3단계 담수화 프로젝트는 수도 무스카트의 해변 지역에 위치한 역

삼투압 방식의 해수담수화 플랜트다. 오는 2027년 1분기에 가동을 시작하면 오만 최대 규모 담수화 시설이 될 예정이다. 역삼투압은 도차가 있는 두 용액을 반투막(멤브레인)으로 분리하고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을 가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LG화학의 역삼투막은 기존 오만 지역에서 하루 47만톤의 물을 담수화해 왔다.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를 더하면 하루 담수화하는 양은 77만톤에 달한다. 이는 오만 전체 해수 담수화량인 150만톤의 절반 이상이다. 오만은 비가 적게 내리는 사막성 기후에 위치해 담수화를 통한 수자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 국가계획인 '비전 2040'을 통해 대규모 담수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중이다.

LG화학의 역삼투막은 염분 제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89%에 달한다. 담수화에 높은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박막 나노복합체(TFN, Thin Film Nanocomposite) 기술로 나노 입자를 막 표면에 입혀 염분 제거율은 유지하면서도 타사 제품보다 유량(flow)은 20% 이상 많다.

LG화학 형훈 RO멤브레인 사업담당 상무는 "사업 초기부터 오만에서 입지를 다져온 만큼, 오만의 주요한 물 공급원이 될 구브라 3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고객사와 함께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기아, '더 2025 셀토스' 출시... 상품성 개선

고객 선호 편의·안전 사양 기본화

기아는 국내 대표 소형 SUV 셀토스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셀토스'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더 2025 셀토스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화하고 상위 트림에만 있던 고급 사양을 중간 트림까지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더 2025 셀토스에 ▲LED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전·후방 주차거리 경고 ▲1열 열선 시트 ▲실내 소파기를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한층 높였다. 또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을 장착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벨트라인에 크롬 몰딩을 적용해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그니처 트림부터 동승석 파워 시트를 추가함으로써 고객 만



기아 '더 2025 셀토스'.

족도를 높였다.

더 2025 셀토스는 신규 내장 컬러를 추가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그니처 트림에는 블랙 가죽 시트를, 그래비티 트림에는 미드나잇 그린 가죽 시트를 추가했다.

더 2025 셀토스의 판매가격(개별소비세 5.0%)은 1.6가솔린 터보 모델 2246만~2790만원이고, 2.0가솔린 모델 2147만~2691만원이다.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양성문 기자

# LG전자,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냉난방공조 사업 역량 강화

LG전자가 한국, 미국에 이어 유럽에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어솔루션연구소를 통해 B2B사업의 중요한 축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 역량을 강화해 유럽 시장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유럽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맞춤형 고효율 공조솔루션 연구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에어솔루션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곳은 한국 창원, 미국 애틀랜타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에어솔루션연구소다.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는 히트펌프,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현지 인재를 채용해 고성능 중인 유럽 HVAC 시장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은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으로 HVAC 사업의 고성능이 지속되고 있다. LG전자는 2024년 기준 유럽 HVAC 시장 규모를 약 130억 달러로 추정하며, 향후 3년간 약 5%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전자는 HVAC 사업에서 '현지 완결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개발(R&D)부터 판매와 유지보수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LG전자 유럽 에어솔루션연구소 전경. /LG전자

지 모든 단계를 현지에서 수행하며,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등 세계 43개국, 62개 지역에 HVAC 아카데미를 갖추고 매년 3만 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 두산, 과기부 '보안관제 전문기업' 인증

두산의 보안관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두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보안관제 센터 운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인증이다. 기술인력, 자본,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국내에는 (주)두산을 포함해 23개사가 보

안관제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정된 기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보안관제센터 운영 지원, 전문 인력 파견 등의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인증으로 (주)두산 내에서 그룹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담당하는 두산디지털기술노베이션(이하 DDI)이 보안관제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차현정 기자